

고난의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수많은 백성이 종려나무 가지와 잎을 흔들며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호산나” 하며 환호하는 소리는 사라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성난 군중들의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소리 높여 예수님을 환영한 날이 실상은 참혹한 십자가 고난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종려 주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가리는 고난 주간의 첫날로서, 고난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셔야 했을까요?

1.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예수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요 1:18, 빌 2:6) 예수님께서 온갖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무수한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섭리였지요.

범죄한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원죄를 가진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또한 사람은 성장하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영계의 법칙에 의하면 모든 죄인은 반드시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하지요. 이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창조주이지만, 모든 것을 공의 가운데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길을 만세 전에 예비하셨습니다. 죄의 삯은 사망(롬 6:23)이라는 법칙을 어기지 않고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만 했지요. 죄 없는 누군가가 죄인들의 죄 값을 대신 치러 주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기에 원죄가 없고, 태어나면서부터 온전히 율법을 지킴으로 자범죄도 없으셨으므로 죄를 대속할 자격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죽어 주신다면 그들이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 해도 공의의 법칙에 어긋나지 않지요. 죄 없는 예수님께서 생명을 대신 내어줌으로써 구원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다...”
(요한복음 18:1~11)



당회장 이재록 목사

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러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사랑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죄인들을 대신해서 받아야 하는 사망의 형벌은 결코 감당하기 쉬운 것이 아니었지요. 예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가까이 그것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 일평생 가난한 삶을 사심으로 죄인들의 가난을 대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온몸에 채찍을 맞아 피 흘리심으로 모든 질병을 대속하셨습니다. 가시관을 쓰고 피 흘리심은 우리가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함이었지요. 나무 십자가에 달리심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함이며, 손과 발에 못 박혀 피 흘리심은 우리 행위로 범한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에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욕하고 침 뱉으며 조롱했습니다. 이러한 죄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가까이 생명을 내어 주셨고, 그들을 위해 용서를 빌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 구속을 완성해야 하는 중한 짐을 지셨고 더구나 참혹한 형벌을 감당하셔야 하기에 이 일을 이루는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에서 잠시도 온전한 쉼이 없으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기까지 온 힘을 다해 부르짖으셨지요. 마침내 때가 되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요 18:11) 하시며 파송된 무리들의 손에 잡혀 가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매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어떤 고통과 희생이 있더라도 그 뜻을 이뤘드리기만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2. 십자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의 마음 가짐

저는 예전에 아파 있을 때 육의 사랑이 얼마나 무약하고 헛된 것인지, 가슴 저리도록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위해 먼저 생명을 내어 주셨고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저의 손을 잡아 주셨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지요.

이 같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이후, 이 세상 누구보다도 그분을 더욱 사랑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사랑에는 한 번도 변함이 없었고 오히려 날마다 더욱 깊어만 갔지요. 저를 위해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주신 사랑을 인하여 아무리 어려운 일을 명하셔도 전혀 망설임 없이 오직 순종만 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하시는지요?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나이다” 고백하며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지요? 생명을 드려야 하는 것도 아닌데, 작은 유혹조차 이기지 못해 범죄하거나 주님께서 맡겨 주신 사명을 소홀히 여기는 분은 없으신지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주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며 둘째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의 피 값을 찾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열정이 불타며, 핍박하는 사람들과 원수를 위해서 오직 긍휼의 기도를 올리며 용서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주님께서 가신 길이요, 하나님 뜻인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날마다 더한 사랑의 고백과 행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신

만민성서아카데미 1학기 개강

지난 4월 14일, 말씀무장과 일꾼 양성의 산실인 우리 교회 만민성서아카데미가 원장 이종원 목사의 설교로 ‘2011학년 1학기 개강예배’를 드렸다.

수업은 4월 18일부터 10주간 매주 월요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초급, 중급, 고급반으로 나눠 진행된다. 강사진은 이종원, 이미영, 조대희, 김수정, 신동초 목사, 빈금선 권사이며 ‘신구약개론’, ‘십자가의 도’, ‘믿음의 분량’, ‘영의 사람’, ‘영혼육’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

한병용 장로,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우리 교회 한병용 장로가 지난 4월 7일,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사)한국노인복지장기요양기관협회 창립 2주년 기념행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노인요양시설 ‘무지개 뜨는 마을’(경기도 안성시 소재)이 우수 시설기관으로 선정되어 원장인 한 장로가 이날 수상한 것이다. 한 장로는 젊은 시절 사업실패로 노숙자 생활을 하던 중, 우리 교회로 인도받아 주님을 영접한 후 소외된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한병용 장로(오른쪽)가 축하 꽃다발을 받아 들고 있다

아동봉사대 발대식 가져

지난 4월 3일, 아동주일학교(교장 장성식 목사)에서는 아동봉사대 발대식을 가졌다. 봉사대 1기 26명은 앞으로 매주 교회 및 인근 지역 쓰레기 줍기, 아동주일학교 행사 지원 및 안내, 충만한 예배 분위기 조성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주님의 마음으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힘차게 구호를 외치는 아동봉사대 대원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번지
대표전화 02) 818-7000

교회 오시는 길



-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2,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 7호선 남구로역에서**
•2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 시내버스**
•5536, 5615 (교회앞 하차)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 (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 교회버스**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문의 : 차량팀 (02)818-7391~3

|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11:00 PM
주일 저녁예배	3: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대학·가·관·청년·배울·마리아]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니엘철야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대만 정기구독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02) 851-3845
070-8240-5609
(예금주 위성영)

국민은행 362-21-0201-106
우리은행 072-255732-02-201
농협 100072-52-061722
우체국 012419-02-047269